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과학을

# 생활과학분야의 연구 절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학문 분야는 자꾸만 세분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세분화 된 전공을 공부하는 새로운 학과가 계속 생겨나고 또한 이들 학자의 모임인 새로운 학회의 발족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새 천년에 들어와서는 매일 듣는 단어가 IT, NT, BT 등 온통 Technology의 세상이다. 자꾸만 작아지고, 쪼개어지고, 더 빨라지고 있다. 한편 환경, 에너지, 우주과학 등 거대 과학기술도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어 현대의 과학기술은 초미세화 또는 초거대화 되는 양극화 방향으로 첨단화 되고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최첨단 과학기술 연구의 결과는 생명의 근본을 이해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어 주었고, 인간의 생활영역을 우주로 확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최첨단 중점 분야에 무게를 두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 건강관련 과학기술 지원 미흡

그러나 한편, 학문 육성에 있어 현재 우리의 현실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감이 있어 우려를 낳게 한다. 삶의 질 향상과 인류 복지를 다루는 분야의 연구가 너무 부진함을 부인할 수 없다. 건강증진 대책이나 생활환경과 관련된 과학, 환경보존에 관한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이 절대 부족하다. 의학 분야에서도 암 예방이나 유전자 연구에 대한 지원은 괄목할만하나 예방의학 쪽의 지원은 미미하다.



金華泳

(한국영양학회 회장/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우리가 학문을 하고 과학을 연구하는 기본 목적이 인류의 안녕과 환경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최첨단 이론이 합하여 생활을 이루는 통합된 개념을 확립하고 이것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접 학문이나 그 중간에 있는 학문의 육성 및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과학분야의 연구는 극히 부진한 분야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본인이 학회장으로 있는 영양학과 같은 학문은 질병 예방과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학문분야임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생활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 연장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인간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희망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미래를 위해서는 균형된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 21세기는 보건과 건강 관련 전문가의 필요가 급증할 것이며 건강분야에서도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이 위주가 되는 사회가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21세기의 주요한 질병 양상은 만성 퇴행성 질병으로 그 발병 요인이 생활습관이나 영양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생활과학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의 연구는 그 효과가 단시일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질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 개선방향

**21세기의 주요한 질병 양상은 만성 퇴행성 질병으로 그 발병요인이  
생활습관이나 영양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생활과학분야의 연구가 절실하다.  
이러한 연구는 단시일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적인 학문지원과 장기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급선무이다.**

설정하여 그 효과를 보자면 10년 혹은 한 세대에 걸친 연구기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으므로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영양개선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나 정보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책수립이나 연구의 가설을 설정함에 있어 기초자료를 외국의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을 꾀하려면 균형적인 학문 지원과 장기적인 지원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계획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는 기초자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에도 그 기간을 1년 혹은 2년으로 (심할 때는 몇개월) 제한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생산하기가 어렵다. 생활과학에 관한 연구들은 1년 정도의 기간으로는 좋은 응용 가능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차 연도의 연구지원 경향이 2차 연도에도 계속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지속적인 연구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많은 연구들이 단편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단편적인 연구 결과의 축적은 학문분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본다. 특히 실태조사에 근거를 두고 중재연구를 실시하여 타당도나 적합성을 검증해야 하는 응용분야의 연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환경에서는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다.

생활과학분야의 학문 분류도 타당하지 않아 연구비 지원이나 자료 발표에 어려움이 많다.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는 세계적인 학문 추세에 따라 새로운 학과들이 신설되에도 우리나라의 학문 분류에서는 아직도 이것이 타당하게 묶여 있지 않아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과학과 영양학의 부적절한 묶임이나 생활과학의 부적당한 분류는 학자들의 연구나 학회의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 **여성 과학자 활용 대책을**

마지막으로 여성 과학자의 활용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근에는 여러 과학기술분야에서 능력있는 여성 과학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제도 하에서는 이들의 활용이 원활하지 않아 유휴 여성 인력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여성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분야의 적절한 여성 인력의 활용은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이러한 능력있는 여성 과학자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 사회적으로 낭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라나는 새 세대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거국적으로 여성 과학자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며 이는 매우 급박한 당면 과제라고 하겠다. 특히 여성 과학자의 인력이 모여 있는 생활과학분야의 지원이 저조한 것이 현재의 여성 과학자 인력활용 부진에 한 몫을 한다고 본다. ⑤7